

‘동물복지 축산’ 동영상으로 쉽게 배우세요

출처 : 농촌진흥청 (2017.6.21)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동물복지 축산’에 대한 농가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축사 인증 기준 동영상’에 이어 ‘운송과 도축 관련 동영상’을 제작해 보급한다.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2012년 산란계, 2013년 양돈, 2014년 육계, 2015년 한·육우 및 젖소, 2016년 오리도 대상축종을 확대·시행하고 있다.
- ‘사육단계’의 동물복지를 인증하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인증농장에서 나온 축산물 가운데 식육·포장육·우유류·식용란의 포장·용기 등에 동물복지 축산농장의 표시를 할 수 있다(그림1).
- 다만, ‘식육·포장육’은 생산과정에 살아있는 가축의 운송·도축과정이 포함되므로 가축의 고통과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한 운송·도축 시 준수 사항을 지켜야 ‘동물복지 축산농장’ 표시가 가능하다.

1) 인증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증 기준안 마련은 농촌진흥청이 맡고 있음. 현재 산란계 90농가, 돼지 12농가, 육계 15농가, 젖소 6농가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았음.

농촌진흥청은 축산물 생산의 시작인 사육단계부터 마지막 단계인 운송·도축까지 동물복지 축산에 부합하는 인증 기준을 알리기 위해 ‘돼지 동물복지 운송·도축’ 동영상을 추가 제작했다(그림2).



〈그림1〉 동물복지 인증 마크



〈그림2〉 동물복지 운송, 도축 동영상 화면

- 이번 동영상은 ‘동물복지 도축장 및 운송차량 지정기준’에 맞춰 가축을 싣고 운송하는 과정, 도축장에서의 관리 등 인도적이고 위생적인 운송과 도축 과정을 담았다.
- 돼지를 차에 실을 때 돼지 안전을 위협하는 도구나 물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운송차량은 청소와 소독이 쉽고, 분변 등 오염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돼지가 다치는 것을 막기 위해 돌출물이나 날카로운 부위가 없어야 하고, 자유롭게 서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 도축장에 도착한 돼지를 내릴 때는 전기 충격기나 날카로운 물체 등을 사용해 고통이나 위협을 가해서는 안 된다. 또한 내릴 때 추락을 예방하는 보호대를 설치해야 하며 미끄럽지 않은 바닥재질로 가능한 지면과 수평으로 설치한다.